

참여정부 2년 '대 불교계 공약' 얼마나 지켰나?

10대 공약 3건 이행, 6건은 '아직'

남북불교교류·문화재관련사업 등 지원 약속 지켜

북한산·천성산 관련 공약 '파기'... "남은기간에 기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지 2월 25일로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노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불교계에 제시했던 공약을 어느 정도 지켰을까.

노대통령은 당시 '불교계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행된 공약은 3건에 불과하며, 1건은 이행되고는 있으나 공약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나머지 6건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아예 파기됐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노대통령의 공약이행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약사항 7개항 중 1개항만 이행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개항 중 2개항만 이행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측은 "예산 지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약속

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현 가능한 공약은 남은 임기동안 이행할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

남북불교 교류사업 활성화→이행
공약 사항 가운데 가장 충실히 이행된 부분이다. 신계사 복원에 필요한 50%의 재원을 지원키로 했고, 사찰단청기술자도 파견했다.

비지정불교문화재 전면조사→이행
문화재발굴조사 예산을 2004년 5억에서 올해 8억으로 늘려 지원했다.

불교문화 정보화사업 추진→이행
2002년 10억원이었던 템플스테이 예산이 2004년 18억에서 올해 25억으로 늘었다. 또 불교전통문화산업

지원센터 건립 예산으로 120억이 편성돼 있다.

불교문화재 보존예산 확대→어느 정도 이행
전통사찰보존지원예산이 2003년 30여억 원에서 2004년 56억, 올해 62억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불교문화재 보존예산은 약속한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다.

인사행정 형평성 유지→불이행
정부산하기구 또는 주요 국정 자문기구에 불교계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교계 인사를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물론 불교계에서 인사를 추천한 적도 없다.

미륵사 황룡사 복원→불이행
대선이후 어떤 언급도 없었다. 당

시 공약을 받아든 불교계에조차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불이행
경찰청과 검찰청에 전문적이고 상설화된 문화재사범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시범사업→불이행
범용적인 지원근거를 만들어 불교청소년 육성을 돕겠다는 공약이 있지만 진행된 것은 없다.

조계사 문화지구 지정→불이행
공약을 위한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불교계의 요구사항도 아니었고, 정부도 무관심한 상태.

북한산 관동도로 및 천성산(경부고속철) 관동터널 백지화 또는 대안 노선 검토→공약 파기
불교계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산 및 천성산 문제는 노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사강행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했다.

각종 봉축사업 공모 봉축위, 11일 마감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위원회가 지원사업과 경연대회를 공모한다.

'단체 봉축행사 및 자비의 손길 지원사업'은 시행단체 및 불교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전시-불교문화 소재 미술·공예·사진·기타 유물 ▲학술-불교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공연-포교 목적의 불교 주제 연극·음악·무용·영화 ▲경연-개인 및 단체의 창작의욕을 증진시키는 각종 경연 및 공모전 ▲여러분야 이웃 돕기 분야에서 공모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3월 1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등을 첨부해 봉축기획단(02-2011-1744, kang@buddhism.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제6회 동경연대회' 경연 부문은 ▲단체 행진(가로 세로 높이 각 50cm 이내) ▲개인 창작등(가로 세로 높이 각 100cm 이내)이다.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봉축위원회(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4월 18일 연등축제 사이트(http://www.lf.or.kr)에 게재 및 개별 통보되며, 부문별 최우수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 1명에게는 50만원, 특선 2명에게는 각 30만원, 입선 약간 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기획실장 법안 재무부장 동진 복지재단 이사 지현스님

조계종 총무원 등 인사

조계종 총무원 새 기획실장에 법안, 재무부장에 동진,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지현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투철한 중단관으로 중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1980년 사미계, 82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총무국장, 11·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고종처리위원회 위원과 서울 금천사 주지를 맡고 있다. 1972년 사미계, 79년 구족계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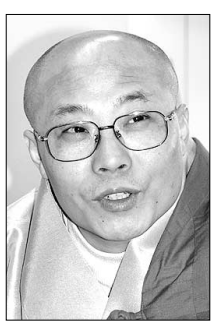
지현 스님은 88-2002년 대구 사원주지연합회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백련차문화원장과 뉴질랜드 남극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지현 스님은 1971년 사미계, 75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사서차장·총무국장, 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13대 중앙종회의원과 봉화 청량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인터뷰 조계종 새 기획실장 법안 스님

"변화따른 시스템 마련에 역점"

▲취임 소감은?
-1994년 중단 개혁 후 올해 11년이 됐다. 중단 개혁 때 총무원 소임을 맡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당시의 원력과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할 길을 열어야 한다. 우선 총무원 내 총무구조 혁신이 필요한 것 같다. 결재라인과 각 기관별 구조의 건강성을 확보하며, 핵심적인 사안들을 분류해 완급을 조정하겠다. 총무원 구성원 및 중진 스님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을 양산하는 풍토를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종헌종법개정을 위해 팀 구성도 생각하고 있다. 총무원장스님 공약사항도 챙길 것이다. 총무원이 행사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한 걸음에 멀리 나가기보다 더디가더라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총무원정에 임하겠다.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3월부터 시범운영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 포교연구실이 추진해온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이 3월 3일부터 10주간 매주 목·금 오후 7-10시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시범운영된다.

2월 23일 열린 제1차 포교·신도단체 지도자 회의에서 발표된 간화선 시범운영안은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등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10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2차 3일, 3차 4일 등 단기 프로그램이 주이다.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각종 수련회, 템플스테이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무구조 혁신을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 원스텝 결재 시스템이나 민원상담센터, 승려노후복지문제 등을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다비문제, 인사구조 시스템 마련, 적절인 인사 등용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은 수직적 구조보다 팀을 구성해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국장 스님이나 담당자들에게 권한과 책임



조계종,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쓰나미' 성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월 25일 자류 토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성금증 5천만원을 전달했다. 사진=박재환 기자

금강산에 불자수련원 건립 추진 현대아산, 조계종에 협력요청

현대아산이 금강산 신계사 인근에 불자관광객들을 위한 '불자수련원' 건립을 추진한다.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2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올 5월을 '불교의 달'로 정해 신계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신계사 불자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불자수련원은 8000여평 규모로 조성되며, 컨테이너로 만든 숙소 1동(600-800여명 수용 가능), 기도원 1동, 기념품점 1동, 사무실 1동, 식당 1동, 기타 부속동 1동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아태측과도 이야기가 됐다"며 "조계종에서 조선 불교도연맹에 협조를 구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26일 금

강산에서 열리는 회의 때 친서를 써 주겠다"며 지원할 뜻을 밝혔다. 또한 법장 스님은 "신계사 인근인 만큼 전통적인 분위기로 건립하며,故 정주영 명예회장을 추모하는 기념관과 비석을 조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김 사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불교가 앞장섰다"며 "신계사 복원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지난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 때 총무원장 스님이 '모든 고통은 나에게 달라'고 말씀해준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내금강 관광확대를 통해 금강산 4대 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등의 사찰복원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구를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5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7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승,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등
· 중급과정 (37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다비식등
· 작법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나비춤) 등
· 실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5년 4월 7일까지
◆ 개강일시 : 2005년 4월 8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탐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海東佛院 慈悲會

베트남 아가씨와 농어촌 짝지어 주기 운동(초혼, 재혼)

삼보에 귀의 하옵고

본 불원자비회에서 현 시점에 國家復興에 일익을 담당하여 農漁村 발전과 총각들의 애환을 풀어주기위한 運動으로 실 경비로서 봉사코저 하오니 각 사암 주지스님들께서는 신도님들의 한을 풀어 주시는 뜻에서 本運動에 적극 동참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은 佛敎國家로서 本院과 자매결연된 사찰에서 추천하여 엄선된 처녀들로서 짝지어 주기 運動을 전개 하오니 이 期會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海東佛院 慈悲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탐골공원 뒤편)

전화: (02)741-4031~3 팩스: (02)765-3169
직통상담전화 H·P. 011-494-9595 담당스님 : 만해스님